

정보화 사회 광장

체신부

정보통신기술개발 체제 기관별로 분리

정부는 한정된 국내연구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정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위주로 돼 있던 연구개발체제를 통신사업자·민간연구소·대학 등 기관별로 확대, 조정키로 했다.

체신부가 최근 밝힌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96년까지 총 1조4천6백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통신사업자들의 연구소설립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통신관련학과의 신·증설을 적극 지원, 정보통신연구인력을 확보 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이같은 통신사업자들의 연구조직확대와 함께 지금까지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을 전담해온 ETRI의 기능을 기존의 응용기술개발 위주에서 기초 및 기반기술위주로 조정키로 했다.(체신부가 밝힌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계획은 「정보통신안테나」란 참조)

전파진흥기반조성계획 마련

체신부는 최근 작년에 수립한 전파진흥중·장기계획 가운데 93년까지의 전파진흥기반조성계획을 확정, 앞으로 3년간 취약한 국내 무선통신분야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이어 96년까지 전파산업을 육성, 2000년까지는 전파이용을 완전 활성

화시키기로 했다.

체신부는 우선 전파산업 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틀이동통신시스템, FM다중방송, 고선명텔레비전, 이동데이터통신시스템등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전파기술들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데이터통신은 '이동통신망을 통해 음성이 아닌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을 말하는데, 송신자는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나 휴대용컴퓨터 등 무선단말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무선기지국을 통해 수신자컴퓨터에 접속된다.

체신부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일방향 데이터전송서비스를 도입하고, 내년말까지 쌍방향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 94년이나 95년부터 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체신부는 이와함께 현재 포화상태에 다다른 8백메가헤르츠대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외에 1~3기가헤르츠대의 주파수도 이동통신용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또 아파추어무선사에게 자동차 이동운용국을 허용하고 음성사서함등 새로운 이동통신서비스를 도입해 전파이용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93년부터 상용서비스될 음성사서함(보이스 메일)은 컴퓨터가 음성메시지를 저장했다가 가입자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 현재 발신자 전화번호만 나타내주는 무선호출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체신부는 이같은 연구개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전파연구소의 인력과

정보화 사회 광장

연구비를 93년까지 70명, 6백10만원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학에는 산·학·연 공동연구소인 「전파기술공동연구소」를 설립, 차세대 첨단통신기술개발과 연구를 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94년에는 「방송기술연구소」를 설립, TV와 라디오등의 방송 기자재 부품기술 개발을 전담시키기로 했다.

체신부는 이 계획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93년부터 방송사등을 대상으로 징수할 전파사용료와 내년말부터 현실화할 전파관리수수료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RDS방식 FM다중방송 서비스

앞당겨 실시키로

체신부는 당초 내년중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RDS(라디오 데이터 시스템)방식의 FM다중방송을 이달중 앞당겨 실시키로 하고, 최근 KBS가 신청한 RDS실용화시험국 2개국을 허가했다.

FM다중방송의 한 방식인 RDS는 FM방송전파에 음성신호를 중첩해 송신하는 음성다중방송과 달리 문자나 도형등 데이터신호를 중첩해 보내는 데이터방송시스템으로 지난 86년 유럽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첨단뉴미디어방송 서비스이다.

체신부는 이번에 시범실시할 RDS로 ▲이동중에 원하는 특정방송국의 버튼을 누르면 주파수가 자동으로 맞추어지는 방송국자동선택 ▲수신기가 어떤 상태에 있든 긴급교통정보가 방송되면 이를 자동으로 들을 수 있게 하는 교통정보 ▲뉴스·

음악·드라마 등 프로그램종류에 맞추어 자동으로 채널이 작동되게 하는 프로그램자동선택 ▲수신기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으면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자동으로 작동해 수신할 수 있게 하는 특정프로그램선택 ▲컴퓨터에 디지털정보를 전달하는 데이터중계등 5개 종류를 선정했다.

EMI 규제 강화

체신부는 국내 PC산업 육성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10·11월 두달간을 EMI(전자파장해)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이에대한 규제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수입PC와 외국산 마더보드 조립PC가 EMI검사를 기피, 검사비용 절감을 통한 저가판매로 국내 PC산업 악화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단속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가 이달말까지 PC 제품에 대한 EMI검사 여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한국통신

내년 예산 2조4천억 책정

한국통신의 내년도 사업예산이 2조4천1백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올해보다 43% 늘어난 규모이며, 내년도 총매출액의 50.3%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통신이 최근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부문별로 보면 ▲전송로증설(8천1백억원), 교환시설(3천8백35억원), 기존시설운용 및 局舍건설(4천4백억원)등 전화사업에 올해보다 23% 늘어난 1조7천3백68억원이 책정됐으며 ▲장거리시외전화시설구축 등 통신망사업에 올해보다 76.8%나 증가한 2천5백87억원이 투입된다.

또 국제통신회선 증설 및 국제통신센터 건립등 국제전화사업에는 올해보다 27.8% 늘어난 4백58억원 ▲전용회선 추가구축(6만회선 규모) 및 유선방송케이블(35만회선) 건설 등 정보통신사업에는 올해보다 40% 줄어든 1천2백42억원 ▲집단전화 설치(1만5천회선) 및 공중기업통신망 구축등 기업통신사업에는 2백10억원 이 각각 책정됐다.

한국통신은 이와함께 ▲위성통신 사업에는 올해보다 무려 2백40%나 늘어난 5백8억원의 예산을 책정, 무궁화號 위성발사 및 기지국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한국통신은 내년도 사업 지원 및 관리시설에 1천7백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TDX구매 경쟁입찰방식 적용

한국통신은 주력 국설교환기인 TDX-1B(최대용량 2만2천5백회선)급 중용량 전전자교환기)의 구매방식을 단체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했다.

한국통신은 내년 중소도시지역에 공급할 총25만1천회선 규모의 TDX-1B 구매에 이같은 방식을 도입, 최근 금성정보통신·대우통신·동양전

자통신·삼성전자등 4개 국설교환기 생산업체가 참여한 경쟁입찰에서 8만5천8백20회선의 TDX-1B를 구매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금성정보통신이 연천·속초·전주·여주전화국의 2만2천회선(18억7천만원) ▲삼성전자가 일광·해미·전곡·고성·밀양등 5개 전화국의 2만7백회선(22억1천만원) ▲동양전자통신이 남원·김포전화국의 2만1천회선(15억9천만원) ▲대우통신이 양산·서산·진영·가평전화국의 2만2천1백20회선(19억4천만원)을 각각 수주했다.

한국통신은 나머지 16만회선의 TDX-1B물량도 경쟁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 내년상반기까지 국별낙찰자를 선정키로 했다.

한국통신은 오는 94년부터 추진키로 한 종합정보통신망(ISDN) 상용서비스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2년정도 앞당겨 9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한국통신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ISDN조기사업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3년까지 시설 및 연구개발에 총4백51억원을 투입, 관련시설 및 서비스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이 이처럼 ISDN조기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들어 한층 다양화되고 있는 통신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현재 ISDN상용화에 나서고 있는 미국·일본·유럽 등 통신선진국들과 이 분야의 시장경쟁에서 기술격차를 해소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통신이 내년부터 상용화에 나설 ISDN서비스 내용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ISDN 상용서비스 조기 추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시기
홈쇼핑서비스	'92년 10월
티키텁서비스	'92년 10월
파일전송서비스	'92년 10월
PC폰서비스	'92년 11월
벨리라이팅서비스	'93년 1월
ISDN원격화상 감시서비스	'93년 1월
GIV팩스서비스	'93년 1월
팩스폰서비스	'93년 1월
화상전화서비스	'93년 5월
국제 ISDN고속회선서비스	'93년 7월
화상공중전화서비스	'93년 8월
다양한 공중전화서비스	'93년 8월
고속파일전송서비스	'93년 11월
고속화상회의서비스	'94년 5월

정보화 사회 광장

클로버서비스 확대실시

한국통신이 착신자가 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클로버서비스를 서울·부산지역에 이어 이달 1일부터 대구·광주·인천·대전지역까지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말 서울과 부산지역에 이 서비스를 도입한 한국통신은 최근 지난 9월말 현재까지 2백여 업체가 6백회선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서비스지역 확대에 따라 클로버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이텔서비스 주전산기로 타이컴 구매키로

한국통신은 내년부터 본격 상용서비스에 나설 하이텔 서비스의 주전산기로 국산 중형컴퓨터인 「타이컴」을 사용키로 하고 내년 하반기에 10대 가량을 구입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한국통신은 타이컴의 회선수요능력이 현재 상용화된 외국산 기종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2백56포인트 밖에 안되는 점을 감안, 하이텔 서비스용 주전산기의 설계 및 성능 개선작업에 나섰다.

한편 타이컴은 지난 8월 내무부가 지역전산센터 구축용으로 올해안에 12대를 구매키로 한데 이어 상공부도 최근 상공행정전산망용으로 사용키로 했으며, 데이콤과 한국이동통신 역시 신규 투자사업에 이를 우선 구매키로 함에 따라 향후 상당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처

자기학습머신 개발키로

과학기술처는 신경망컴퓨터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물을 보고 들으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학습머신을 개발키로 하고 본격 연구에 나섰다.

과기처는 이를 위해 시스템공학연구소(SERI)를 주관연구기관으로 오는 93년까지 총 3억3천만원을 투입, 산·학·연 공동으로 연구에 나서 전문가시스템·음성전화교환시스템 등에 탑재할 각종 병렬처리기술과 학습 알고리듬 및 학습·인식보드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이들 기술을 내년부터 추진할 신경망컴퓨터 국책연구개발사업과 연계, 신경망컴퓨터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체에 모든 기술을 이전,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석박사과정 개설키로

과학기술처는 한국과학기술원 홍릉분원 자리에 산업체 및 연구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관련 4개 첨단분야 산·학제 석박사 과정을 개설, 전문성과 응용능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지난달 과기처에 따르면 이 석박사과정에 정보·통신학과, 메카트로닉스·자동화학과, 컴퓨터·회로설계학과, 전자재료학과등 4개과를 개설해 내년 신학기부터 석사급 2백명과 박사급 1백명을 각각 모집키로 했

다.

한편 과기처는 매년 모집정원을 늘려 96년에는 1천명의 고급인력을 배출할 계획인데, 교육부와 협의해 학생들이 입학 1년후 자격시험을 거쳐 정식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재무부

S/W구매가 개발비산정기준 따라 책정

과기처와 재무부는 최근 정부의 소프트웨어구매에서 그동안 거래실례나 원가계산을 도외시, 응찰업체들의 덤핑을 초래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구매 소프트웨어의 예정가격을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법에 근거한 소프트웨어개발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올해안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78조(예정가격결정기준) 2항에 「단 컴퓨터프로그램계약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과기처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비 산정기준에 따름」이란 내용을 삽입, 내년부터 시행에 옮기기로 했다.

이처럼 예산회계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소프트웨어의 구매예정가격에 거래실례나 원가가 반영돼 업계가 어느정도 이윤을 보장받게 된다.

또 신규개발품이나 특수규격제품이어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엔 소프트웨어 요구분석, 설계, 프로그램작성, 통합테스트 및 설치, 유지보수로 공정을 구분, 각 공정별로 소요금액을 산출한 후 기술용역 대가기준

에 따라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 및 기술료등의 합계액을 산정해 구매예정가격으로 책정하게 된다.

공업진흥청

전자제품 용어통일 추진

공업진흥청은 전자·전기용품과 관련된 외래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용어를 가장 적합한 한글표기로 통일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진청은 우선 소비자들의 이해부족으로 피해가 늘고 있는 조작표시에 관련된 용어부터 개선키로 하고, 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용품형식승인을 받아 전자·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의 조작기능 표시에 대한 한글표기사례를 종점조사하는 등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자·전기용품에 관련된 용어의 한글화 및 통일화작업이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진청은 업계 의견을 수렴, 빠르면 11월중에 전자·전기용품의 조작기능표시에 대한 한글표기표준안을 마련해 업계들이 이를 용어를 사용토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시스템공학연구소

연구전산망 워크숍 개최

시스템공학연구소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대덕본소에서

성기수 소장, 유희열 과기처 기술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연구전산망 워크숍 및 국산워크스테이션 설명회·전시회」를 가졌다.

연구전산망의 활성화 및 원활한 네트워크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연구전산망 관련 기술동향과 추진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있었다.

한편 이와 함께 개최된 국산 워크스테이션 전시회에서는 삼성전자등 5개업체가 참가했다.

보험개발원

보험전산망 구축 추진

보험개발원은 국내 15개 손해보험사와 31개 생명보험사 및 각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보험전산망을 오는 96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지난 7월 재무부와 보험사 사장단에 의해 전담사업자로 지정된 보험개발원은 보험전산망 구축사업을 3단계로 추진, 우선 92년말까지 손해보험사를 묶고, 2단계로 94년말경 전체 생명사로 확대시킨 후 96년말까지는 각 금융기관 및 정부등과 연결키로 했다.

「소프트웨어 수요예보 지침」 마련

－체신부－

체신부는 지난해 9월 수집한 '정보통신소프트웨어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체신부와 공중통신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체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정보 및 구매정보를 사전예보키로 하는 「소프트웨어 수요예보 지침」을 마련했다.

체신부의 이같은 방침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충분한 국내개발시간을 부여해 국내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며,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수급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요예보기관

- 체신부 및 공중통신사업자(한국통신,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2. 수요예보 대상분야

- 소프트웨어 개발·구매등과 관련된 업무전산화 계획
- 통신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서비스용 소프트웨어 및 기술개발 과제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수요 계획
- 소프트웨어관련 주요 투자사업계획
- 단, 자사의 영업기밀을 침해하거나, 기술적으로 자사개발이 불가피하거나, 경영관리상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는 제외함.

3. 추진요령

가. 수요예보 시기

- 소프트웨어 개발정보 및 구매정보를 신속히 사전예보함으로써 충분한 국내 개발시간을 부여하고 국내업체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수요예보는 전년도 말까지 예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기구매 계획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계획 확정 즉시 예보함.

나. 수요예보 내용

- 수요예보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프트웨어 명칭
 - 개발기간
 - 계약체결예정일 또는 구매예정일
 - 개발 또는 구매예정 가격
 - 개발내용 또는 구매내역
- 예보내용은 가급적 변경을 억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에는 시행전 수정예보하여야 함.

다. 수요예보 대상 결정

- 수요예보 대상 소프트웨어는 추진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되 외주개발 또는 구매기준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함.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분리

구매가 가능한 시스템은 소프트웨어를 분리하여 수요예보대상에 포함시켜야 함.

마. 수요예보 방법

- 관보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지에 예보내용을 게재하며, 정보통신진흥협회는 각 수요예보기관의 예보내용을 수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자료화한 후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예보내용 문의에 상세히 응하여야 함.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지 등 소프트웨어관련 정기 간행물에 예보내용을 게재하여 예보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

바. 세부실천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보고

- 수요예보 대상기관은 수요예보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하여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해야 함.

—기관별 세부실천계획 작성 :

'91. 10~11

—수요예보제 시행 : '92. 1~

- 수요예보 대상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요예보제를 추진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분기 의원 5일까지 체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